

와가두구, 부르키나파소

SIAO, 와가두구 국제 수공예품 박람회



첫번째 와가두구 국제 수공예품 박람회(SIAO)는 토마스 사나카라(Thomas Sanakara) 회장의 후원 아래 "수공예 84(Handicraft 84)"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으며, 1988년에 제도화되었다. 이 박람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장인들과 구매자가 만나 경험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아프리카 수공예품의 국제 시장이 되었다. 2022년에는 짝수 해에 열리는 제16회 아프리카 공예 비엔날레가 열렸다.

SIAO는 장인, 생산자, 아프리카 수출업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과 전문 바이어들이 직접 만나는 전문 박람회로서, 아프리카 수공예의 가장 규모가 크고 우수한 국제 시장이다. 또한 기술 네트워크, 공예 분야의 조언 및 교육에 대한 뛰어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사명과 목표

SIAO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프리카 수공예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그 제품들의 상업적 홍보와 교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주요 목표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 장인들을 10일 동안 한 자리에 모아 국내 및 국제시장의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전시 및 부대시설

SIAO는 7헥타르의 면적에 지어졌으며, 현재6개의 전시관이 있다.

- 에어컨이 설치된 3 개의 판매 전시관(솔레일 레반트(Soleil Levant), 아크-엔-시엘(Arc-en-Ciel), 킬리만자로(Kilimanjaro));
- 통풍이 되는 2개의 판매 전시관(고레(Gorée), 피라미데스(Pyramides);
- 공모전 창작품 전시관 1개(창의관(Creativity pavilion)).

또한 SIAO에는 다음과 같은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두 개의 창고
- 식사 공간
-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SIAO에 승인되는 제품

박람회에는 오직 장인 제품만 받아들여진다. 장인 제품이란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데에 장인의 수작업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해 만들어졌든 혹은 수동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였더라도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인정된다. 박람회 참가 자격은 SIAO의 등록 양식이나 SIAO 웹사이트 www.siao.bf에 명시되어 있다.

Contact management:

01 BP 3414 Ouagadougou 01

Such. : +226 56 45 41 90/ 60 85 64 09

siao@siao.bf or salonsiao@ymail.com

* * * * *

레크레아뜨랄(Le Récréâtrales)—20년!

레크레아뜨랄(Le Récréâtrales)은 저술, 창작 및 연극 연구를 위한 범아프리카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2002년에 부르키나베 연극인 에티엔 미농구(Etienne Minoungou)에 의해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작가, 감독,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시나리오 작가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그들이 함께 예술적 수준이 높은 현대 연극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레크레아뜨랄은 20년 후인 지금 아프리카 현대 연극의 주요 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부그셈텡가(Bougsemtenga)라는 지역에 의해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는데, 그 곳 주민들은 2006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축제와 함께 행사에 참가하려 온 예술가들과 국제 관객들을 환영해왔다. 20년 사이에 레크레아뜨랄 프로젝트는 변화를 거듭하며 점차 이

벤트에서 벗어나 거주자들, 즉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일상 생활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설 극장인 레크레아뜨랄레스 극장과 더불어 시나리오작가와 기술자를 배양하기 위한 무대예술대학(Scéno College)이 세워졌다. 그 외에도 연구, 교육 및 창작 연구소인 엘란 실험실(ELAN Lab); 어린이를 위한 워크숍인 어린이 공공 프로젝트(Young Public Project); 청소년을 위한 전문화 프로그램인 예술적 동행(Artistic Companionship) 등이 생겨났다.

2016년부터 아리스티드 타르나그다(Aristide Tarnagd)가 감독을 맡고 2019년부터 오딜 상카라(Odile Sankara)가 실행을 해왔는데, 이 두 예술가는 레크레아뜨랄에 창작하러 온 예술가들과 그들을 환영하고 지금까지 전반적인 축제 운영에 참여해온 주민들을 연결시키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여성들과 젊은이들은 예술가들과 함께 교대로 다음과 같은 창작무대에 오르도록 초청받는다: 세 차례의 오프닝 쇼; 2020년 이후로 전국 순회 공연을 계속하고 있는 연극 "지역(Le Quartier)"; 부르키나 파소의 폭력 극단주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술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의 젊은이들과 실향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예술 워크숍 "형제애(Terre Ceinte)" 프로젝트.





결과적으로 레크레아트랄은 대중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참고 사례를 만들었다: 즉, 지역에서 문화 행사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내고 삶의 장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레크레아트랄은 오늘날과 같은 분열과 개성의 시대에 의미와 연결을 창출하는 임무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시대의 큰 재앙에 맞설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연설, 쇼 및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류를 되돌려 놓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Ramde Harouna

(Focal Point of Ouagadougou City)